

## 영암 왕인축제 화제의 이벤트

# ‘千人 千字文’ 한·중·일이 쓴다

영암군청 2층 문화관광과 사무실엔 요즘 향긋한 먹방(墨香)가 그득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 국내외 명사 700여 명이 각각 한자 한 글자씩을 써서 보내온 화선지가 두 풀한 책으로 만들어져 사무실 한켠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천자문 가운데 한 글자씩이 쓰인 A4용지 크기의 이들 화선지는 ‘2007영암왕인문화축제’ 특별 프로젝트로 준비된 ‘1,000인 릴레이 천인자문 받기’ 행사를 위해 최근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보내져 온 것이다.

‘천인 천자문 받기’는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 찬란한 아스카문화를

쫓파우게 한’ 왕인 박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올해 영암군이 특별히 마련한 행사다. 영암군과 왕인축제위원회가 선정한 국내외 1천 명의 명사들로부터 특정 한자를 쓰인 화선지 3부를 기증받은 뒤, 이를 책자로 만들어 영구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정치권과 학계, 재계,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명사 개개인에게 특정 한자를 써주도록 요청했으며, 1일 현재 1천 명의 명사 가운데 700여 명이 영암군에 글자를 전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地(땅)’자를 써서 보냈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哉(그런가 재)’

자 그리고 박광태 광주시장은 ‘辰(별 진)’자를 각각 전달했다.

유태평 광주 동구청장은 始(비로 소)자, 전주언 서구청장은 制(글을 제)자, 황일봉 남구청장은 ‘文(글 월)’자, 송광운 북구청장은 ‘字(글자 자)’를 써보내기도 약속했다.

또 강경재 전남대 총장은 ‘職(일 직)’자, 김혁종 광주대 총장은 ‘登(오를 등)’자를 써서 전달했다.

전남 단체장 가운데서는 정종득 목포시장이 ‘庚(부릴 사)’자, 오현섭 여수시장이 ‘司(옳을 가)’자, 신정훈 나주시장이 ‘器(그릇 기)’자, 이정섭 담양군수가 ‘難(어려울 난)’자를 각각 써보내기로 했다.

영암군측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천자문의 한자를 배정하는 데 특

이와 함께 김명운 문화관광부장관이 ‘玄(검을 현)’자를 써보낼 예정이며,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宇(집 우)’자를, 유홍준 문화체육장관은 ‘宙(집 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대(大)’를 상

정하는 ‘大(큰 대)’를 써 보냈다. 해외에서도 일·한친선협회장과 왕인총한경수호회장, 하정웅씨 등 100명이 이미 글자를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당초 ‘天(하늘 천)’자를 써주도록 요청했으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영암군측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천자문의 한자를 배정하는 데 특



영암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국내외 명사 700여명으로부터 받은 한자들을 천자문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맨 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地’자

가 보인다.

/워리기자 jwvi@kwangju.co.kr

별한 원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은 명사들로부터 기증받은 글자를 모아 이달 말께 3권의 천인

천자문을 최종 완성한 뒤 한 권은 영암에, 또 한 권은 왕인박사의 묘소가 있는 일본 하라카타시에,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한문의 발생지자이 영암과 자매결연을 한 중국 호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인천

자문 완성을 기념하는 ‘상징집’을 건립,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왕인문화축제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

지 영암군 서면 구립리 왕인박사

출생지 일대에서 ‘왕인의 숨결, 생생

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홍도~흑산도

바다수영대회

전남도 7월 말 개최

한국의 섬을 대표하는 홍도와 흑산도 간 바다수영대회가 열린다. 전남도는 1일 홍도와 흑산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말 이틀간의 일정으로 바다수영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도와 흑산도 간 22km 거리를 헤엄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수영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5월부터는 참가자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달 초 바다수영 전문기를 조성, 현지 답사를 벌여 행사 장소와 시간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

## “신혼여행은 긴급 여권발급 대상 아니다”

“신혼여행은 긴급 출국사유가 아니라 긴급 여권발급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사고 등으로 도움을 요하는 재외국민에게 24시간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콜센터는 개소 2주년을 맞아 최근 상당 사례집 ‘언제 어디서나 0404’를 발간했다.

콜센터는 사례집에서 주말에 여권

만료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다며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고 소개하고 “주말 출국국가에게는 긴급 여권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권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서 “신혼여행은 한달 전 여행 계획이 나오는 ‘비긴급 출국사유’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긴급한 여권 연장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청산명령

### 행자부, IMF 이후 지방공기업 첫 강제 퇴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제퇴출 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1일 “행자부 산하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분석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2003년 당

기 순수이익 6천400만원이었으나 매년 순실적이 늘어나 2006년에는 3억4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전남 장흥군내 농특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유통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청산된 공사의 유통조직과 영업망은 장흥내 다른 유통기구인 APC가 인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 및 국정 담당자,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광명시하수도, 거제시상수도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인력조정, 종합계획수립, 재무회계 관리 전문성 확보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아시아, 온난화 최대 피해”

유엔기후변화위, 2050년 10억명 물부족 ‘신음’

아시아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전염병, 굶주림, 홍수 등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오는 6일 발표할 기후변화가 지구생태계에 미칠 충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 기후변화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최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 인용을 입수한 AFP 통신이 전했다.

1천400쪽 분량의 보고서는 아시아 주민 10억명 이상이 오는 2050년까지 인구증가에 의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한 물 부족 사태로 신음할 것이 90% 확실히하고 내렸다.

동남아시아에선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남부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강에 물을 공급하는 히말라야 빙하는 지구온도가 3℃ 상승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에 처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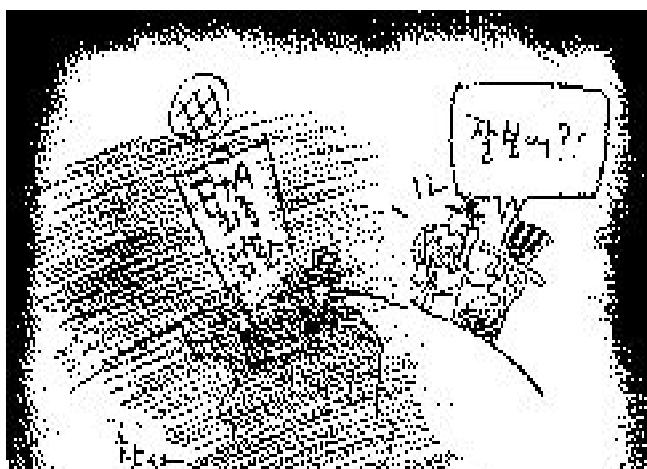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빙하지역도

제의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5분의 4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이외에도 남유럽, 미국 남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존 더워웠던 지역들은 기후로 경자지가 축소되고 동식물 질병은 물론 말라리아나 탱기열 등 지구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열대성 질병이 확산되면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뤼셀=연합뉴스

## 의미 만명

- 김종우



앞날을 보는 것 같다

## 광주시 美 투자유치단 8,400만弗 MOU 체결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8개 기업과 8천4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유치 및 수출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유치단은 특히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문화산업 육성방안 및 나노 공동연구 등을 협의하고,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는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 30일까지 미국 뉴욕과 시카고,

밸링햄, 샌프란시스코, LA 등을 방문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단장으로 한 ‘미국 투자유치단’은 주를 제조업체인 ‘Hydro 사’ 및 특수금형 제조업체인 ‘Richard Tool & Die 사’와 광주 평동공단에 올해 안에 각각 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또한 뉴욕의 ‘SB CORE 사’와 300만 달러 상당의 광주김치 ‘감칠배기’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8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LA투자설명회에서는 광통신 분야에서 5천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 수출국 단변화를 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나노(NT) 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스텐퍼드 대학의 필립 왕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3건의 공동연구 MOU도 체결했다.

박 시장은 “광(光) 산업과 자동차 산업, 디지털가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의 전략산업과 문화수도 조성사업 등 광주시정 전반을 미국 사회에 흥보한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신안군 광고 제2007-127

## 분묘 개장 공고(2차)

『안와 대리·존포간 도로확포장공사』지구내 편입된 분묘를 징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연고자 및 관계인은 광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리며, 등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 일의 계약서리 하자들을 품고 합니다.

2007년 4월 2일

### 신안군수

- 분묘소재지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신26, 신24, 신1번지
- 분묘기수 : 3기
- 개장시기 : 최초 공고일로부터 8개월 후 (1차 3월 2일)
- 개장시기 : 안좌 대리·존포간 도로확포장공사
- 개장방법 :
  - 무연분묘 : 광고기간 만료후 법에 따라 일의 계약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함께 계약
- 0·1정정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신1번지
- 품고기간 : 2007. 4. 21 ~ 2007. 5. 31 (2개월)
-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작등록증·쪽수 등)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에 신고
- 신고처
  - 신안군청 도시개발과 : 061-240-8485 FAX 061-240-8586
  - 전남 신안군 인쇄판사무소 : 061-282-4050 FAX 061-240-8791

전라남도 광고 제2007-208호

## 해남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공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신설단지 지정계획(안)을 공고합니다.

2007. 4. 2

### 전라남도지사

#### 1. 해남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

- 신설단지의 명칭 : 화원지방산업단지
- 신설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선택구조를 위한 조선단지 건설
  - 조선산업밸리스마트 구축과 지역균형개발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립리 일원
  - 면적 : 2,806,591㎡
- 신설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07~2010
  - 개발방법
    - 개발방법 : 대형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현태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지정근로 : 신설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요유치업체 : 기관운영장비 제조업체(신설조업)
- 의견체출
  - 공고된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남군수·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서는 해남군 청탁난감과 피지와 비교하고 일련번호에 보입니다.
- 관계도서는 제작자에게 생략

아래 기재 종서의 소지인은 공시회고기일인 2007. 5. 10.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와 상실하여 종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4월 2일